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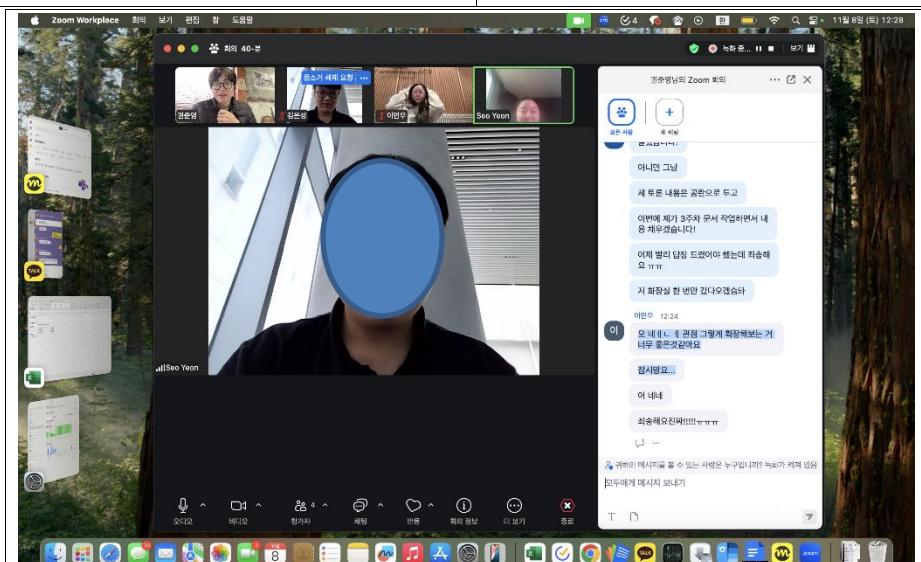
#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팀명

1주차	일시 참여 학생 진도	10월 2일 14:00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권준영(2191001)
		○
		김은성(2594023)
		○
		이연우(2331129)
		○
		최서연(2293013)
		○
	도서명: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진도페이지: 1p. ~ 103p.
		
	<p>※ 간단한 자기소개 및 아이스브레이킹 후 독서 토론 진행.</p> <p><b>주제: 인상 깊었던 부분과 느낀 점 소개</b></p> <p><b>권준영</b></p> <p>저자가 글을 재밌게 쓴다고 생각했다. &lt;하이테크마케팅&gt; 수업에서 기술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요즘 시대에는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성공한다고 배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나온 프리토타입 기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p> <p><b>김은성</b></p> <p>&lt;사용자경험디자인&gt; 수업에서 기획할 서비스 주제를 그냥 정하라고 해서 어려웠다. 이 책을 읽어보니 아이디어 선정과 기획에 대한 방법들이 잘 적혀있었다. 이 책을 미리 알았다면 프로젝트 주제를 더 좋은 것으로 선정할 수 있었을 것 같았다.</p> <p><b>이연우</b></p> <p>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경험과 능력이 필수지만, 그것이 모든 걸 증명해 줄 수는 없다는 점을 통해 이상만을 좇을 필요가 없고, 많은 경험과 능력치가 성공의 공식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다.</p> <p><b>최서연</b></p>	

		AI 시대에 접어들며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중요해짐을 실감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주입식 교육으로 얻은 딱딱한 사고력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	--	--

2주차	일시	10월 30일 14:00 상상관 12층 '케이키친한상'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권준영(2191001)	O
	김은성(2594023)	O
	이연우(2331129)	O
	최서연(2293013)	O
	진도	도서명: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진도페이지: 104p. ~ 228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최서연, 이연우, 김은성, 권준영]</p> <p>주제: 인상 깊었던 부분과 실생활의 프리토타입 적용 방안</p> <p><b>권준영</b></p> <p>정부의 정책에 대해 프리토타입을 수행해 정책의 파급력을 미리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았고, 프리토타입을 연애 상대와의 데이트 계획에 적용해보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시장성과 사용성 조사라는 프리토타입 개념 때문에 여러 연애 상대를 가져야 프리토타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나왔다.</p> <p><b>김은성</b></p> <p>프리토타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며, 1부에서는 그래도 작동되는 것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작동이 되는 척하면서 가짜로 시장성과 사용성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다.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를 프리토타입하여 '내가 이런 스</p>

	<p>펙으로 맞추고 오면 나를 뽑을 것인가?'라면서 현실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p> <p><b>이연우</b></p> <p>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을 되살려보면, 막연하게 이상을 좇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타겟 고객의 행태를 '직접' 보고, 무언갈 발견해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결과의 질이 크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다.</p> <p><b>최서연</b></p> <p>XYZ -&gt; xyz 기법이 인상 깊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분명한 어휘와 숫자로 표현하는 점에서 나의 의견을 전달할 때나 팀원의 의견을 전달 받을 때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이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 팀원과 의견 전달이 명확히 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경험이 생각나며 이 기법을 이제야 알게된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p>
--	---

3주차	일시	11월 8일 12:00 온라인 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권준영(2191001)		○
	김은성(2594023)		○
	이연우(2331129)		○
	최서연(2293013)		○
	진도	도서명: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진도페이지: 228p. ~ 293p.
	토론 내용		

[좌측부터 **권준영, 김은성, 이연우, 최서연**]

주제: 인상깊었던 부분과 깨달음

### 권준영

책에서는 '생각은 글로벌하게 테스트는 로컬하게' 전략을 강조했다. 회사가 아직 특정 지역에서 제품에 대한 성공을 하기도 전에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신경 쓸 거리가 늘어나면서 내실을 다지지 못한다.

	<p>이러한 관점에서 나 자신의 상황에 대입을 해본다면, 만약 내가 취업을 해야할 회사가 앞에 말한 상황과 같다면 이는 회사의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했다. 또,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굳이 많은 돈이 아닌 적은 돈으로도, 심지어 도넛으로도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저자의 단호한 말투에 자신감을 얻었다.</p> <p><b>김은성</b></p> <p>통계학 강의를 들을 때는 공식들만 배우느라 이해가 되지 않았었지만 이 책에선 실제로 그 값들의 비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서 새로웠고, 단순 이상치 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수집했던 상황과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새로 알게 되었다. 또 뒤집어서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라는 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었다.</p> <p><b>이연우</b></p> <p>몇 년 째 생각랜드에 떠돌면서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부분을 읽고,</p> <p>그동안 나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한 게 많았던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실패하는 것이 가장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와닿았다.</p> <p>또한 기존의 것과 바꾸고 싶은 부분, 가정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p> <p><b>최서연</b></p> <p>적극적 투자 지표 부분 - SNS 반응이나 설문조사는 0점짜리 지표라는 저자의 의견이 흥미로웠다.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특성 때문에 투자 지표로서의 가치를 잃는 점이 좋은 지적이라고 느꼈다.</p>
--	--

4주차	일시	12월 2일 17:00 식당 '몽마르 언덕'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권준영(2191001)	O
		김은성(2594023)	O
		이연우(2331129)	O
	최서연(2293013)		O
	진도	도서명: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진도페이지: 294p. ~ 완독

	
	<p>[좌측부터 김은성, 권준영, 이현주 교수님, 최서연, 이연우]  <b>주제: 책 내용 요약, 사례 중심 토론</b></p>
토론 내용	<p><b>권준영</b></p> <p>이 책을 읽으면서 사고 방식의 변화를 경험했다. 짧은 시간 내의 성공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방식은 부담이 아닌, 오히려 어떤 일을 해내고자 하는 동기로 작용했다. 더불어 단계별로, 구체적인 아이디어의 디테일을 살피는 저자의 모습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요인들을 하나하나 고려해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 등을 추론하는 식으로 사고하게 되었다.</p>
	<p><b>김은성</b></p> <p>별개로 공부하던 디자인과 통계였지만, 이 책을 계기로 창업까지 함께 바라보게 되면서 창업에서는 어떤 아이템을 사업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통계에서는 어떻게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검증/분석하는지, 디자인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실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 영역이 결국 '창업'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마침 트랙을 선택해야하는 시기와 맞물려 올해 새로 생긴 자율전공설계•창업트랙을 활용해 창업 관련 전공을 새 트랙으로 정하기로 했다.</p>
	<p><b>이연우</b></p> <p>여러모로 완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되새겼다. 특히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걸 완벽히 체화한 저자가 가설을 입증할 때, 토론을 유도해서 수정해 나간다고 한 부분을 읽고, 그런 타인들의 말을 생산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또한 실패가 오히려 이를 악물고 일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다.</p> <p><b>최서연</b></p> <p>책 마지막에 기저귀 사업을 하려다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둔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창업을 위해서는 '될 놈'인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몇 년 간 그 과정을 해</p>

		쳐나갈 수 있는 흥미와 열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고학년이 되어 나의 진로를 고민하게 되는 요즘, '충분히 몰두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맞지 않다면 그만 두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해당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	--	---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권준영 (2191001)	내 삶에 적용할 유용한 책을 독서토론이라는 자리에서 접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이여도 혼자 읽었으면 깊게 와닿지 않았을 내용을 해박한 교수님과 함께 읽어나가니 생각의 사고가 한층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나비효과로 인생이 달라졌다 라고 할 수 있을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	김은성 (2594023)	책을 고르는 과정부터 평소 잘 생각하지 않던 주제를 마주하게 되어 새로웠고, 서로 다른 이유로 공부하던 디자인과 통계를 이 책을 계기로 하나의 흐름 속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읽기 전에는 두 과목을 따로 떼어 놓고 제2트랙도 둘 중 하나만 고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한 쪽만 택하면 제2트랙이 진로와는 동떨어진 구경용 공부로 남을 것 같다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두 분야를 창업이라는 방향 아래서 함께 묶을 수 있단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그 경험이 제2트랙을 창업 관련 전공으로 설계해 보자고 마음먹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이연우 (2331129)	살면서 창의성이 요구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낼 일이 많았기에 늘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독서클럽을 접하게 되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의 인생에서 여려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책이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준 느낌입니다. 꼭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 스스로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저자의 태도가 마인드셋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최서연 (2293013)	교수님, 그리고 다른 학우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트랙의 학우와 교류할 수 있어 좋았고, 바쁜 학기 중에도 책 한 권을 완독하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